

러시아 민족 영성의 이중성과 그로 인해 현 시대까지 드러나는 영적 현상

조혜선 러시아민족대학(I.F.M.O) 박사수로

핵심단어: 영성, 민족 영성, 영성 형성, 영성의 현상.

Introduction.

One phenomenon that we modern people living in the 21st century were mistaken about was revealed before our eyes in this era. It was none other than the unconscious belief that human personality had grown as m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I saw a scene of a Ukrainian citizen asking, "Is this kind of war possible for us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e situation we are facing today must be a big shock to everyone in the world. Without needing to explain, everyone knows and enjoys the development of science. Rather, we can say that we are dominated by that science...

When COVID-19 began, people around the world rejected Chinese, reluctant to go next to them, and even demanded responsibility. Now, the whole world is pointing its finger at Russia due to the consequences of the war and all the hardships caused by these. Since the situation caused by the war yielded extremely negative phenomena, one may say from a human perspective that it is appropriate.

However, Russia's totalitarianism is a one-man dictatorship. If you look at the picture that symbolizes the Communist Party, you would see a huge figure of Bolsheviks and people come and go under his knee. The good people obeyed the orders given to them without any awareness of the system, and they have not participated in today's war. It is only regrettable that people are dying without knowing why they should fight.

Through the historical situation that Russia has lived in, the people have not had time to learn to raise their voices. Perhaps they are starting to raise their voices little by little.

Therefore, we Christians who have biblical values, understand the origins of this Russian situation, have the largest land on the Earth, and have pride as third Jerusalem. I hope

to help directly and indirectly to change their values to a healthy spirituality and prepare this thesis to analyze the cause that led to this phenomenon.

서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 현상이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인성도 과학의 발달만큼 성장했으리라는 무의식적인 신뢰였다. 우크라이나의 시민 한 사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전쟁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하는 장면을 보았다, 오늘의 이 사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임이 분명하다. 과학의 발달 정도는 이 지면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잘 누리고 산다, 오히려 그 과학에 지배 받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중국인을 거부하고, 옆에 가기를 꺼려하며 심지어 책임까지 지라고 요구하는 광경들을 보았다, 지금은 전쟁의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한 풍파로 온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전쟁으로 인하여 빚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현상을 낳게 하였으므로, 인간의 시각으로는 마땅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체주의는 일인독재 국가이다. 공산당을 상징하는 그림을 보면 볼셰비키당이 어마어마한 거구로 나오고 그 무릎 밑에 사람들이 왕래한다, 선한 국민들은 체제에 대한 인식도 없이 주어진 명령에 복종하고 살았고, 오늘의 전쟁에도 가부에 참여한 바가 없다,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살아왔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일부를 제외한 대 다수의 국민들은 목소리 높이는 것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 아마도 이제부터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성경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러시아 상황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제3의 예루살렘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이, 그 자부심을 가진 만큼 건강한 영성으로 가치관이 바뀌어 가도록, 직접 간접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현상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고자 이 소 논문을 준비한다.

본론

1. 러시아 민족이 이해하는 영성

러시아민족이 이해하는 영성을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러시아의 면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나라, 동양과 서양에 맞물려 있고, 다 종족으로 연합된 민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기본 골조가 다르게 세워진

공산 사회주의를 거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접 살아보지 못한 체제를 통해 형성된 특징을 가진 영적 성격을 감지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잘 한다 해도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세밀하게 관찰 한다 해도 전체에 못 미치는 부분은 남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세계가 뒤흔들리는 혼란의 결과를 맞는데 시초가 된 러시아 민족의 민족 영성을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러시아에서 이해하는 영성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러시아어 사전 중 가장 권위가 있는 언어사전 (1)에 의하면, 영성이란 인간의 영혼에 속하는 속성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윤리적이고 직관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는 가장 우위에 있는 성질이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어휘사전에서 우샤코프(2) 라는 학자는 영성은 “육적 체감의 흥미 등을 제제하고 내면의 완전성을 지향하는 속성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영성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다분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좀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학자들의 영성에 대한 해석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러시아 일반인들에게 “영성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2018년) 본인을 정교회나 카톨릭, 개신교 등, 기독교인으로 자칭하는 약 15%의 경우,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성화를 이루는 삶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70%의 사람들은 “영성은 문화”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예술적인 달란트 도 영성이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도 영성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사랑도 영성에 속한다며,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나 화평을 이루는 등, 인간심성에 긍정적인 모든 부분을 영성으로 보는 견해도 10% 정도 있었다.

영성을 종교, 또는 이성을 초월한 성질과 관계 있는 것으로만 수용하는 한국의 영성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성경에서도 민족성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디도서 1:12).”

두 성경구절을 통하여 베뢰아 인들과 그레데인, 두 민족의 영적 성질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2. 러시아 민족에게 함유된 이중 영성.

이중성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정교회가 들어온 이후, 성경에 표현되는 기독교적 인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부쳐진 것으로 본다. 러시아 민족의 기독교 영성은 989년 공식적으로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인 이후, 정교회를 통한 영성이 깊게 심겨져서,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자, 러시아는 카톨릭과 쌍벽을 이루는 정교회의 대표적인 국가라는 자긍심과 함께, 제 3의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영적 자부심까지 심령 깊숙이 간직하게 되었다. 비록 공산혁명으로 70년 동안, 신앙이 단절되는 공백은 있었지만, 1991년 러시아의 개혁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헌신하는 기업가들에 의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큰 힘을 쏟고 있고, 지방은 물론이고 각 도시에도 마을마다 정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민족의 영성 형성은, 천년 이상이 된 정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고대부터 정교회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정교회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길었던 몇 천 년의 기간을 통하여 형성된 “자연인의 야만적이고, 이교도적” 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민족만의 독특한 영적 성질이 러시아 민족의 본토인인 슬라브족에게 영적인 기질로 심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정교회를 평할 때, 1975년에 기록한 민족 종교 학자 노소바(Г.А. Носова)의 저서(Язычества в православии, 정교회 안에 이교도))(3)에 의하면,

«글을 알고 성경을 보유 할 수 있었던 귀족들과 지성인들 외에, 일반 농민이나, 도시의 빈민층에게는 정교회에서 오랜 동안 교회의 교육을 따르도록 투쟁하였으나, 고대 슬라브족의 전통적 믿음과 숭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어서 결국 정교회가 이교도적인 사회와 의식에 부합하여 부분적으로 동화하고 수정하면서 정교회에 순종하도록 통제하였다. 그렇게 수용한 결과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정교회의 정통성이 굴절되어,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특징지어지는 이교도적인 영향이 기존의 정교회 전통을 벗어나 현지화된 정교회의 양식으로 새롭게 태동하여 정교회 내에 이교도적 사상과 이미지가 가득 차게 되었다. 물론 동방 슬라브족의 이교도 역시 정교회와의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교회의 예식을 빌려서 자국의 신화 등을 실제생활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시켰다» 고 한다.

또 모스크바 주에서 발행하는 “고대 러시아: древняя русь) 잡지에 «러시아 역사»(4) 라는 소 논문을 발표한 네크라초바(М. Б. Некрачова) 역시, 자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랑과 증오, 위대한과 비열함, 관대함과 시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숙했다고 표현한다.

한 민족에게 영적인 성질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크게 자연 환경과 기후,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종교와 교육(구체적 교육과 삶의 교육)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는 세속적 인간 영성과, 종교 영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이교도적 영성과 정교회적 영성으로서, 러시아의 철학자 베르자예프 는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신학적 미덕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5)

러시아 인들은 고도로 양극화된 이중 영성을 함유하였으나, 그 양 극단이 잘 조화를 이룬 독특한 영성을 지닌 민족으로, 매력적인 것과 실망스러운 점이 함께 있고, 가장 강렬한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극단적인 증오를 유발한다. 러시아의 광대한 면적과 러시아의 영혼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고, 서구 유럽과 같이 개인소유의 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계시와 영감의 민족으로써 계산하는 것에 익숙지 않고 쉽게 극단적 상황에 빠져 들곤 한다. 전제주의와 무정부 자유주의, 잔인성과 친절함, 개인주의와 인류애, 외식과 진리탐구, 차별주의와 보편주의, 종말론적 메시아적 종교성과 경건함, 신에 대한 외설과 불경 등이 동시에 심겨진 민족성이, 러시아 자국의 철학자들이 분석하는 러시아의 이중성(영성)이다. (6))

3. 이교도적이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러시아의 영적 성질 형성 배경.

1) 스키타이 족의 영성 함유.

러시아 민족은 고대 자국민의 종족이 스키타이 족의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접한 지형들 사이에 두고 그들과 함께 전쟁하며, 용병생활을 하며, 갈등을 겪으며 살았다, 물론 주변에 다른 종족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스키타이 족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는. 현재 동슬라브족인 러시아인들의 지역에 예전에는 스키타이 족이 살았고, 그들이 사용한 장식품이나, 토기나 질그릇을 제시하여, 학자들이 고대 러시아 민족의 조상은 스키타이 족 이라고 하였던 기록들도 있다.(7)

스키타이 족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민족을 평가 할 때, 평화를 사랑하고 조용하며 평온한 민족 이라고 기록하지만, 반대로 6세기경에 살았던 무명의 그리스 역사가는 슬라브족을 평가할 때, 루시(러시아) 민족의 용감성은 타고난 것이라고 하였고, Послы же описывали свой народ тихим и миролюбивым. Но в 6 веке славяне доказали Греции, что храбрость была их природным свойством.

슬라브인들의 용감하고 큰 체구는 숲 속의 특별한 창조물이어서 수풀 속에 숨었다가 순식간에 나타나 적을 남아챌다고 하였다. (Византийские историки пишут, что славяне, «сверх их обыкновенной храбрости, имели особ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биться в ущельях, скрываться в траве, изумлять неприятелей мгновенным нападением и брать их в плен»)(8)

러시아 역사가들도 러시아와 스키타이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 보고자 노력한 흔적이 구석 구석에 있다. «슬라브민족 탄생의 신비한 근원인 스키타이 러시아» 라는 책을 쓴 라리오노프(Ларионов Владимир Эвгеньевич) 는 러시아의 조상이 스키타이 족임을 확신하며 설명하고,(9) 1930년대에 있었던 레닌그라드 잡지에 «슬라브-스키타이 연구» 를 기재한 라피세프(Латышев В.В.)는 9세기의 아랍(스키타이 족을 조상으로 받아들이는)의 역사학자들이 러시아 고대 도시가 세 곳으로 분립될 때 붙혀졌던 한 지역의 이름(아바르크) 가 지금의 아랍이라는 용어가 되었다고 설명하여, 러시아가 스키타이족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10)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블라지미르 모쉴나

는 «세번째 러시아 부족»이라는 주제로 프라하의 잡지에 기고했고,(11) 세르게이(Сергей. Н. Б)는 «가장 오래된 러시아의 세 중심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논문을 1928년 «바트 지역의 교육대학 지에 기고하여(12) 러시아와 스키타이족과의 관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서 «스키타이 부지: Скивский Жребий»(13) 라는 책에서도 작가 끼릴과 유리는 그리스 비잔틴 학자들이 러시아족을 스키타이 족으로 불러왔음을 제시한다.

이처럼 스키타이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잘 알려져 있던 스키타이 족들의 민족성이 극단적으로 자연적이고 본능적이며 강인했던 성질 때문이다.

«스키타이 부지»에서 비잔틴 그리스인들이 북쪽에 자신들과 상관없이 스키타이 혹은 탐프로 스키타이(좀더 존중하는 표현) 들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마 전사였던 스키타이는 돌아서서 활을 쏘는 훌륭한 궁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지를 입음으로 기동력이 뛰어났던 “고대 슬라브인-스키타이족은”, 자신의 용맹을 의지하여 그 어떤 적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적을 죽이고 그 사람의 가족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적들의 몸에서 피를 받아 마시고, 해골로 대신하여 잔을 만들어서 술잔으로 사용했고, 칼 모양의 전쟁 신과 다신에게 제사 지냈으며 <Геродот описывает характер древних славян-скифов так: «в надежде на свою храбрость и многочисленность, они не боялись никакого врага; пили кровь убитых неприятелей, выделанную кожу их употребляя вместо одежды, а черепы вместо сосудов, и в образе меча поклонялись богу войны, как главе других мнимых богов»> 점령지 주민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민족이라고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평가했다(14), 스키타이가 엄격하고 잔인했던 것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거나, 용병으로 전장에 나가면서 각 용병들이 본인들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의 일부를 동물에게서든 아니면 사람에게서든 죽인 후에 잔인하게 칼로 잘라서 말에 달거나 본인 목에 걸면 그 기운이 자신에게 스며 들어온다는 미신을 믿고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이다(눈, 귀, 머리, 이빨 등등), 그래서 무의식적인 영적 기질로 드러나는 러시아인들의 강인함과 불같은 기질이 드러날 때 마다, 고대로부터 스키타이에게서 받은 영적인 영향이 내면에 심겨져 민족 영성의 한 부분이 된 결과라고 판단하게 된다.

4. 이교도적인 강인한 자연의 민족성이 민족 내면에 유지되는 조건.

1) 북쪽에 위치한 지형과 추운 기후.

러시아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여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겨울이 길고, 바람이 (특히 시베리아 지역) 거세며 영하 40도에서 60,70도까지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일년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추운 기후와 겨울이 긴 북쪽 러시아 민족의 생활은, 자연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고 그 추위를 인내하는 생활을 한다. 그러다 보면 감정을 외면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내면으로 쌓아가는 성정이 되고, 머리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거센 시베리아의 황량한 바람이 연이어 불어 닥치면, 마땅히 뿔어내야 할 심정의 소리가 안으로 잦아들게 된다.(경험으로)

몇 천 년을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오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있던 강력한 성정이 터져 나오면, 마치 화산이 불을 뿔어대는 듯한 결과를 낳는다.

2) 오랜 봉건제도

국가 건설의 시조인 류릭에 이어 882년 끼예푸 루시에서-노브고라드,=블라지미르-라잔-트베리-스몰렌스크-푸스콥-모스크바 공국-그리고 페터스부르그황제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민족은 왕족과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 주어지는 삶을 살아온다. 모든 나라가 왕정을 거치지만, 러시아는 영주들, 왕족, 귀족들에게 소유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이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 예카제리나 대제의 아들 알렉산드르 1세가 왕이 되어야 농민들을 위한 법1801년에 채택되어, 자유로운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상인, 농민)에게 토지를 구입할 권리가 주어진 법령이 채택된다.

이 법령을 계기로 귀족 독점의 파괴가 시작되지만, 1803년, 귀족들이 자유 재량에 따라 농노제에 속한 농민들이 상당한 대속 물을 제공하고 임의에 따라 땅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농민의 수는, 귀족들의 거센 반대를 두려워한 알렉산드르1세 하에서 겨우 4만 7000명의 사람들뿐이었다.

그 후 알렉산드르 2세 때인 1861년에 와서야 “농노해방”(거주지 이동이 자유로운)이 결정되지만, 알렉산드르 2세는 좀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암살당한다.(15)

천년 이상이나 묶여있던 무의식적인 자유를 희구하는 심령은 세월을 더하면서 더 강한 분출의 욕구를 제제하며 살아왔으리라 본다.

3) 70년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

801년에 시작되는 농민들의 모임이 1861년 거주지이동이 자유로와지자, 여러 단체들이 늘어났고, 볼셰비키 당원들의 열성적인 교육으로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구성되자,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에 참가했던 농민들은 왕정과 귀족이 무너지고, 농민들의 세상이 시작되리라는 유토피아적인 희망을 가졌으나, 전 세계의 모든 브루지아 국가를 해방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혁명”이라는 주제이래 시행된 스탈린의 정책은 “국민전체를 국가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개별농장을 합병하여 집단농장을 만들고, 국내여권이 없는 자들은 거주지를 이동할 수 없고, 5개년 계획으로, 전력 4배, 석탄2배, 선철3배, 집단농장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소득을

획득한다.

전체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1922년 “형사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자유재량권을 기준으로 국제 관계를 갖거나 정책에 항거하는 자들은 함께 혁명을 이룬 동지든지, 일반인이든지 “사형”에 처결하여 죽음이라는 공포감으로 아무도 항거 할 수 없는 정책을 시행했고, 그 정책에 위배되어 죽어나간 사람들의 수가 천만에 가깝다고 통계한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산당원은 국민의 10%에 국한되었고, 정치국의 명령은 “민주적 중앙집권제” 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어서 상부기관의 결정은 하부기관에 절대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100% 실행해야 했다(불복종).(16)

천년 이상 노예처럼 묶였다가 겨우 땅도 소유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의 자유가 생겼는데, 5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공산사회의 극단적인 독재로 다시 회기 되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억압받는 70년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분출하고자 하는 영적 성질을 더욱더 깊이 잠재하게 만든다,

결론

몇 년 전 러시아 정치부 라디오 방송에서 지도자들의 성정을 주제로 삼아 토론하는 중, 러시아의 많은 지도자 중에 성정이 유사한 지도자로 세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베드로 1세, 스탈린, 그리고 푸친이다.

러시아 쌍뜨-뻬쩨르부르크를 방문한 사람들이 모두 동이 하듯이, 1703년에 베드로 1세가 세운 그 도시는 참으로 아름답다. 섬과 섬을 이어야 했으므로 밤마다 다리가 들리는 12개의 큰 다리가 있고, 동네와 동네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250개나 된다. 가이드들은 종종 도시 뻬쩨르부르크를 뼈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설명한다.

짧은 백야가 지나면 6개월이나 되는 칙칙한 긴 겨울에, 40도가 오르내리는 영화기온에다가, 늘지에 푹푹 빠지면서 건물을 세우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돌이 굴러서 눌러 죽고, 교회의 돔에 수은을 칠하다가 중독 되서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기온이 빠져서 죽고 등등, 많은 사람의 죽음에 개의치 않고 도시를 건설 할 수 있는 성정이 베드로 1세였다.

스탈린의 잔인성은 위에서 설명한 바가 있고, 막스의 이론과 유물론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그렇게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레닌조차도 놀랐다고 한다, 러시아 민족의 이교도적 강한 민족영성이, 자국을 지켜야 된다는 목적이 눈앞에 세워지자 나폴레옹도 물리치고, 왕족과 귀족으로부터 자유하자는 욕구가 10월 혁명을 달성하고, 900일 동안 포위되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갇힌 생활에서도 끝내 독일로 부터승리를 이루는 민족성을 발휘한다,

푸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푸친의 성정을 스탈린과 연결시키는 것이 좀 의하했으나, 21세기 오늘날에 빛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혼란과 불황에 놓이게 되니, 그들의 평가가 맞았다는 새삼스러운 확신이 든다.

러시아가 자유화 된지 31년이다,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세계와 공유하고 지구촌의 삶을 함께 살았으나, 생활은 세계와 같이 발전된 문명의 편한 삶으로 바뀌었지만, 나라전체를 이끌어가는 전체주의적 일인독재의 체제가 바뀌지 않자, 31년의 세월이 무상하게 지나갔다, 물론 일부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교육이 없이 흘러간 31년은, 적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건강한 결과를 맞지는 못했다,

러시아가 개혁이 되고 10여년이 흘렀을 때, 방송국에서 한 기자가 러시아의 초등학생이 레닌을 모른다며, 어떻게 레닌을 모를 수 있는지 당황해 하던 음성이 지금까지도 울려온다. 이유는 레닌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동굴에 결박된 채로 갇혀있는 사람들”의 예로 인간은 결박 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눈앞에 존재하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하였고,(17)

장자는 인간의 앎(교육)에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과 암묵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 즉 교육되지 않아도 실현 되어지는 무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앎, 내면에 잠재된 영성으로, 교육에 내재적 원리가(18) 적용됨을 시사한 바가 있다, 즉 각 민족에게 형성되어 있는 민족 영성이 교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러시아 민족이기에 공산사상이 혁명으로 실현이 가능했고, 한국민족에게 잠재된 영성이 기독교를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과 같이.

교육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이상적 상태로 이끄는 작용이고, 교육은 가치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교육원리를 받아들인다면, 31년 동안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이 (18) 러시아 내에서는 전체 독재 체제가 바뀌어 지도록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의 결과로 알 수 있다.

한국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등 혼란이 만만치가 않다. 허다한 원인이 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내적으로 강건한 국가를 이루어가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끊임없이 통전적 인성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 특히 기독교 교육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고,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교육이 가장 적합할지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도서

1.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и. Ожегов
2. Толкóвый словáрь рúсского языкá» —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толковых словар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данный в четырёх томах в 1935—1940 годах под редакцией .(러시아어 해설사전)
3. Язычество в прославии. Г.А. Носоваю Москва. 1975 ст 150 (с 22-до 30)
정교회 안의 이교도.
4. Древняя Русь. Владимир Мавродин, русский мир. 2009. Ст 392 (с 7- до10)
고대 러시아
5. Бердяев Н.А. Размышления о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М.: Политика, 1992.(러시아 혁명에 대한 숙고, 베르자예프)
6. Беодряев Н.А Русская идея, судьба Росс. 2000 г, Москва, шевчук. Ст 540(с 222-до 250)
7. мир скифской культуры. Д. С. Раевский 2006ю москвою ст 598. 19
пользовать
8. Демьянчук, И., Дьяков, В. и др. Антология русской души. Киев, 2012.
(러시아 민족성)
9. Скифская Русь таинственный исток славянской расы. Владимир Ларионов, 2011.момква. эксмо. Ст 464.
10. Славяно-скифские этюды(영광스러운 스카타이 스케치) Собловский А.И 1923년 지방 교육대학 학술지에 기고.
11. к вопросу о трех древнейших центра рувы(고대 러시아 중심지인 세 도시에 대한 질문)

С.Н.Быковского , в трудах вят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1928.

12. С.Н. Выкобский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세 중심지역에 대한 질문) 야스 크 교육대학 학술지 기고 1928년

13. Скифский жребий (스카타이 부지) Владимир Ларионов 2011. Москва. Ст 462 (62)

14. Скифский жребий (스카타이 부지) Владимир Ларионов 2011. Москва. Ст 462(60)

15. все мирн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я в XIX века. Г.Б. Полях москва.

16. 처음 읽은 러시아역사, 에이브레헴 작, 번역: 김하은, 신상돈. 2012년 아이부스 출판. 393 쪽 (294-304 참조)

17. 교육의 본질과 교육학. 엄태웅저 학지사 출판, 2006년. 365 쪽 (178-187 참조)

18. 교육과 학습. 신창호 작, 온고지신 출판, 2011년 서울, 284쪽 (26-32 참조)